

잘 만든 상품 하나 열 매장 안부럽다

'사찰 문화상품' ... 똑같은 기념품 NO

전통의 맛이 살아 있는 서울 봉은사는 신도 외에도 유난히 참배객이 많은 사찰이다. 이 곳 입구에 위치한 불교용품 판매점도 기념품이나 공양물 등을 사기 위해 드나드는 이들로 늘 북적거리다.

하지만 판매점을 한번 빙 둘러본 뒤 물건은 사지 않은 채 돌아서는 이들이 많다. 봉은사를 대표할만한 기념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5월 31일 봉은사를 찾은 김진호(43·서울 성내동)씨 가족도 같은 경우다. 김씨는 어느 사찰에서나 볼 수 있는 똑같은 상품

다는 봉사 개념이 강한 직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윤을 내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마저도 이익금 가운데 공양물 판매액을 제외하면 이윤은 더 줄어든다.

사찰재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 불교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찰은 거의 없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찰은 별도의 건물을 짓지 않고 기존의 공간을 활용해 사찰을 찾는 불자들이나 참배객들에게 서비스 차원으로 불교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실정이다. 최대한의 이윤을 내기 위한 경제논리가 희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경제논리의 부



삽화=이동수

경제논리 부재로 서비스 제공 차원 못 벗어나

조계사, 수익창출 위한 문화산업단 설립 예정

을 진열해놓은 판매점을 볼 때마다 실망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불교가 사회적으로 뒤떨어진 종교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 김씨는 "허술하고 특장 없는 상품을 진열해놓고 손님을 맞는 사찰의 불교용품 판매점에서 세상이 어울리지 못하는 자폐아 같은 불교를 발견하게 된다"며 꼬집는다.

재는 우수한 상품개발, 적극적인 마케팅팅은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찰이 적극적으로 이윤 창출을 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활동에 대한 불교의 소극적인 시각에서 찾을 수 있다. '종교가 장사를 한다'는 시각을 설득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부족한 탓이다. 이는 '생산불교'가 초보단계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논리 적용 없는 운영

사찰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전통차집이나 서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불교용품 판매점과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합천 해인사의 경우 영입을 통해 얻은 금액은 사찰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익금이 워낙 소액인데다가 노동보

일본, 불교와 경제 접촉

'경제불교'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경제활동이 활발한 환경을 가진 일본불교. 그 저변에는 모든 사업은 부처의 활동이라는 뚜렷한 경제관이 깔려 있다. 마쓰시타전기의 마쓰시다 고노스케 창업주, 후지은행의

야스다 겐지로 설립자 등 수많은 기업가들이 불교와 경제를 접목시켰다.

일본불교의 경제관은 사찰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이윤 획득을 위한 각 사찰의 상품 개발이나 사찰 부속 영묘공원 운영 등은 일본불교의 경제력에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오사카 카즈오지(勝尾寺)는 부속호텔과 납골묘 운영, 불교상품 판매로 '경제불교'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찰이다. 흙과 나무, 강화플라스틱(FRP) 등 다양한 재료로 독특한 공양구를 개발한 카즈오지는 사찰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판매한다.

법당은 물론 영묘, 탑 등 경내 곳곳에서 공양구를 울리고 합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신도·비신도를 가리지 않고 카즈오지를 방문한 이라면 누구든지 공양구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비즈니스 불교'로 탈바꿈해야

카즈오지의 사례는 우리 사찰의 불교상

품 개발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서울 조계사는 지난해 카즈오지를 견학하고 돌아왔다. 수익모델 개발을 위해 불교문화상품 개발과 불교 조형 등의 연구·개발을 담당할 문화산업단 설립을 구제화하기 위해서다. 조계사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불교문화산업의 요량이 될 건물을 10월께 착공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조계사의 발 빠른 움직임은 사찰의 수익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현대사회에 맞는 불교로 전환하지 못한 한국불교가 'biz(business)불교'로 탈바꿈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사찰 경영 연구를 진행 중인 홍광표 동국대 교수는 "biz불교"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찰의 이윤추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한국불교의 풍토를 바꾸기 위한 불교·경제학자들의 불교경제론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부다의 경제학(9)

주주만의 행복회사?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기업을 생활하는 곳이 아니라 주주들에게 돈을 벌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돈벌이 공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른바 주주이익 우선주의 경영이 한국의 모든 기업을 점령해버린 것이다.

주주들은 철저히 기업의 이익 증대에만 관심이 있다. 이러한 주주이익 우선주의 경영이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을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노동자를 단지 생산의 도구로만 인식하도록 우리 모두를 세뇌시키고 있다.

살벌한 주주중시 경영의 피해자는 근로자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경영방식을 강요하고 있는 것도 우리들 자신이다. 주식시장의 대중화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도 이미 주주이다. 우리는 주주로서 돈을 벌기를 원하면서 또 다른 한 편으로 주

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사고방식에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발붙일 곳이 어디에도 없다. IMF 외환위기와 함께 찾아온 주주이익우선 경영방식은 경영자들로부터 하위급 기업 경영을 하면서 생각해야 할 많은 것들을 거주장소로 주주이익에 해로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종업원의 인생을 생각하는 것, 환경을 생각하는 것 등은 과연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일까.

기업의 경영자들이 일방적인 주주 우선 정책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은 직장 내의 우리들을 불행하게 만들어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주주인 우리 자신이 불행해지는 것이다.

기업은 단지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노동을 파는 곳만은 아니다. 현대 서구의 경제학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돈을

주주 경영은 철저한 이원론적 사고 기반

배려의 마음 사라지고 이윤 추구만 급급

자리이타 정신 실현될 때 모두에게 이익

식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한다.

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의 종업원들이 돈벌이 기계가 되기를 원할 때 우리 자신도 직장 내에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그리고는 이 무자비하고 살벌한 현실을 한탄하고 비난한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머리띠를 묶고 투쟁하면서, 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의 경영자에게는 노조 하나 제대로 못 다룬다고 질책한다. 그러한 현실을 만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주주우선주의 경영은 서구식 세계관이 만들어낸 경영방식이다. 기업을 만든 것은 자본을 낸 주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철저히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이 경영 방식의 기본 철학이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서양의 철저한 이원론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강성 노조가 이끌고 있는 이 땅의 노동운동도 사실은 이러한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IMF 외환위기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버린 많은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둘이 아니다'라는 의식이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일을 하고, 그 돈으로 행복을 찾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들은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완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다. 다른 사람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일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찾는다. 일은 우리의 삶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연기의 세계이며, 그 어느 것 하나 혼자 독립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설교하셨다. 우리 자신은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다. 한 편으로는 고승인이지만 또 다른 한 편으로는 피고승인이기도 하다. 주주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경영은 결국 그 누구에게도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주주의 우선주의 경영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자리이타(自利利他)를 강조하는 부다의 경영방식이야말로 주주의 진정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영방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철저한 주주의 중시 경영은 역설적으로 자리이타의 경영이다.

■ 구병진(경영학 박사)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가지방석매듭 단주

가지방석매듭 단주는 단순한 단주가 아니라 건강과 미적 감각을 살리는 '명품' 단주입니다. 특히 가지방석매듭은 금강저매듭과 함께 이미 타불전에 사용되는 불교 전통의 매듭입니다. 이를 단주와 결합시켜 사용하시는 분의 위신은 물론 선물하시는 분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또한 몸에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최고의 상품이 될 것입니다.

가격: 80,000원



수월관음도 가정의 가보로 인기

가정의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점안불공까지 마쳐!

집안의 역운을 영원히 쫓고 만사형통되는 영험 중생의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취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이든 인간 고통과 고뇌를 단절시키고 오는 생애에 좋은 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영험의 불화이다.

수월관음도는 집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영험이 나타나 모든소원을 성취하게 큰 스님들로 하여금 집안 식과 축원불공을 마친 영험의 불화로 집안에 모신지 100일도 안되어 수형생이 원하는 명문대학과, 사범고시등 각종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장은 신비하리만큼 사업이 풀리고, 결혼문제도 고민하던 인연의 짝을 만나며, 후손을 잉태하고, 폐허기만 하던 재정이 상승하고, 중병에서 소생하고, 취업의 고민이 해결되고, 가정의 위기가 화목으로 해결되는 등 놀라운 영험이 나타나는 화제의 불화이다.

불화의 명장인 신성 金義植 화백께서 3년간 기도와 영험으로 그린 수월관음도는 100% 천연고분화 화지에 2도 판화하고 베를린 원시를 사용하여 수백년이 흘러도 변색되지않고 최고급2단출표구로 거실

불자가정의 후손에게 물려줄 3대가보중 하나! 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풍수가 있는 세계가 격찬한 영험의 불화이다.

불자가정의 영험의 3대가보중 하나인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뒷면에 카필라 불광사의 보승사와 자자승은 후손에게 물려줄수있는 소장인원이 있다.

영험이 나타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서울 조계사 옆에있는 카필라 불광사에는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아들딸 자녀에게 한평생 주기도 하고, 새집이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 등 지난해 KBS 역사스페셜 수월관음도 방영후 전화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주고있으며 점안불공을 마친 수월관음도를 받으신 목욕재계하고, 정한수놓고, 삼배하면서 갖가지 소원기도 한다음 거실 또는 사업장에 걸린 영험이 시작된다.

문의(02)741-4488 가격195,000원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세로88cm 가로58cm

왜! 금강저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상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밧고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으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집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으며 영험의 지체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남치, 강도, 강간, 유괴,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실이다. 운전하는 자녀, 딸자녀, 경찰관, 직장인, 학생,

삼재도 물리치는 삼고금강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 가정주부들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영험의 수호신으로 운전석에 여성은 핸드백속에 학생은 가방속에 넣으면 지갑속 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있도록 순금처리하여 축원불공을 마치고 카필라불광사에서 전화로 판매하고있다.

가격 2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금강저의 영험
합한세상닥처를 화를 미리 쫓는 수호신

옴마니반메훬 福지갑 출시

평생부자로사는 놀라운 팔길상의 신통력!

사랑하는 아내에게 부자의 선물!

존경하는분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여성용장지갑 (보라색)

남성용장지갑 (검정)

여성용장지갑 (보라색)

남성용장지갑 (검정)

여성용장지갑 (보라색)

남성용장지갑 (검정)

여성용장지갑 (보라색)

남성용장지갑 (검정)

여성용장지갑 (보라색)

남성용장지갑 (검정)

여성용장지갑 (보라색)

남성용장지갑 (검정)

여성용장지갑 (보라색)

남성용장지갑 (검정)

여성용장지갑 (보라색)

남성용장지갑 (검정)

여성용장지갑 (보라색)

남성용장지갑 (검정)

여성용장지갑 (보라색)

남성용장지갑 (검정)

여성용장지갑 (보라색)

남성용장지갑 (검정)

여성용장지갑 (보라색)

남성용장지갑 (검정)

여성용장지갑 (보라색)

남성용장지갑 (검정)

여성용장지갑 (보라색)

남성용장지갑 (검정)

여성용장지갑 (보라색)

남성용장지갑 (검정)

여성용장지갑 (보라색)

남성용장지갑 (검정)